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74)

# 昧於勇退

매 어 용 퇴

용퇴하는데 어두웠군요.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사람에게는 멋진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끝을 잘 맺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최후의' 승리(勝利) 혹은 영광(榮光)이란 말은 인간 승리의 표현이 되었다. 마지막 승리는 앞에서 저지른 실수도 가려질 수 있으니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마지막에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경우라면 더욱 칭송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거나 절어서 발군(拔群)의 실력으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여도 마지막 이 비극적 실패로 끝나면 비참한 일이다. 그래서 끝을 잘 마감하는 것은 인생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수명이란 무한정 연장될 수 없는 것이어서 실혹 130살까지 살아도 결국 언젠가는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되고 그에 대한 평가는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망자(亡者)는 변명할 길이 없으니 정말 살아있는 동안 끝을 잘 맺도록 해야 한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지배를 받았던 사람도 한바디 변명도 못하고 후세 사람에게 평가되니 말이다.

사실 보통 사람이야 역사의 평가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적겠지만, 살아가는 동안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 성공이냐 업적이냐 만년(晩年)에 수포(水泡)가 된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큰 업적을 이루어 성공한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중요한데, 그럴할 방법이 있을까?

속자처통가에 큰 업적을 쌓고도 마지막에 자살(自殺)로 마감해야 했던 사람의 행적이 실려 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용퇴(勇退)하는데 어두웠다.'고 하였다. 흔히 말하는 '박수 받을 때' 떠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으니, 바로 용퇴가 그 해답임을 말했다.

남송 이종(理宗) 시절이었다. 당시에 금(金)을 멸망시킨 몽고가 남송을 압박하고 있었다. 남송에서는 금(金)의 수모(受侮)를 받았던 역사를 조금이라도 돌아본다면 발분(發奮)하여 국방을 튼튼히 해야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호(口號)만이었다. 실제로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국가의 안위와 이익에 앞서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몽고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서는 촉(蜀, 四川) 지역이 중요한데 여기에 관직을 주어 사람을 보내 보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기록을 보면 16년 동안 많은 사람을 보냈지만, 이 지역에 임명된 장수 대부분은

늘어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거나, 일선 지역이니 고생스러워서 잠시 있다가 방법을 강구하여 다른 곳으로 떠났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각박한 짓을 하여 치부하려고 하면서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니 백성들도 살길을 찾지 못하여 불안하였다. 실혹 현명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불러보았지만 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몽고군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았다. 조정에서는 걱정하고 있다가 드디어 여계(余玘, 1199~1253)를 찾아내어 그에게 이 어려운 임무를 맡겼다. 그의 출신은 좋지 않았지만, 일찍이 명장 조구(趙葵)의 밑에 들어가서 두각을 나타냈고 나중에는 몽고의 주사(舟師, 水軍)를 공격하여 불 지르고 교량을 파손시키고 군사를 온전히 하여 돌아온 사람이었다. 몽고에 대항하여 승리한 드물게 보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황제 이종(理宗)을 알현하면서 사천(四川)지역의 회복을 자기 책임으로 하겠다고 나서서 이종은 그를 사천선유사(四川宣諭使)로 삼은 것이다.

조정에서는 그에게 사천지역 통치에 관한 전권(專權)을 주었고 그는 부임하자 기대대로 전임자들과는 사뭇 달리 일하였다. 과거의 폐정(弊政)을 일신(一新)하려고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현관(招賢館)을 만들어 인재를 불러서 극진하게 대우하였다. 그러자 능력 있는 사람이 속속 왔는데 전에는 불러도 오지 않던 사람도 그에게 와서 계획이나 방안은 건의하였다.

이들의 건의에 따라서 몽고를 방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진지(陣地)를 설치하고 군사의 지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사천의 형승(形勝)을 살펴 가면서 방어진지도 재편하였다. 또 양곡(糧穀)을 모으는 것으로 군사는 절대로 사천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니 백성도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거처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 획기적으로 달린 것이다.

그 위에 사천지역 경영할 계획을 세워 《경리사축도(經理四蜀圖)》를 만들어서 올리며 말하였다. "다행스럽게 10년의 세월을 저에게 빌려주신다면 손으로 사축(四蜀)의 땅을 이끌어 이를 조정에 올리고 그런 다음에 산림(山林)에 들어가서 귀로(歸老)하는 것이 신의 소원입니다." 10년만 이곳에서 전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엄청난 자신감이었고 황

제도 이에 동의하여 사천지역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여계의 이러한 활동과 조치로 몽고병(蒙古兵)은 사천지역을 다시 넘볼 수 없었으니 그를 제갈량(諸葛亮)으로 인식하였다. 이렇게 8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몽고군은 사천지역 변경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고 농사에 힘쓸 수 있어서 풍년까지 드니 예전의 모습이 회복되어 갔다. 황제는 그에게 '옛날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는데 장차 멀리까지 도모하기를 더욱 힘쓰니 그의 충성스러움과 부지런함에 보답하려면 충분히 포장(褒獎)하고 면려(勉勵)할 만하니 관질(官秩) 두 등급을 올리라.'고 조서를 내렸다. 엄청난 성공이었고 사천지역에 대한 장악력도 커졌다.

그러나 그의 성공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의 성공은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게 될 수도 있다.'고 황제에게 참언(讒言)하였다. 10년을 기다려 달라는 요청했던 것은 잊히고 황제도 이에 동의하여 그를 불러들이라고 하였다. 너무 큰 업적이 도리어 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하여간 조정에서 부른다든 소식을 접한 여계가 갑자기 죽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독약을 먹고 죽었다고 하였다. 그는 그 업적과 상관없이 조정에 불려가서 사소한 꼬투리로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기에 자살했다는 뜻이다. 그의 죽음을 들은 촉인(蜀人)이 모두가 비통해하였지만 성공한 사람의 비극적인 최후는 바꿀 수 없었다.

그는 왜 이런 최후를 맞았을까? 속자처통가에서는 '오래도록 편의(便宜)한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빌려서 혐의(嫌疑)받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용퇴(勇退)하는데 어두웠으니 드디어 참구(讒口)가 다가왔던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황제조차 10년 뒤에 귀로(歸老)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못 믿은 것이다.

실제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도 반드시 결점 한두 가지 있는 법이다. 그러나 일정부분 성공하게 되면 혐의를 받기 전에 용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났다. 왜 '박수 받을 때 떠나라.'라는 용퇴를 몰랐을까? 사실 용퇴를 모르는 분이 그분들뿐이겠는가?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 공리공론(空理空論)

발공. 다스릴 리. 논할 론.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이론 공리와 공론이 합쳐진 사자성어로 헛된 이치와 헛된 논리라는 의미다.

비슷한 의미로 탁상공론(桌上空論)이 있다. 실적이 없는 헛된 이론,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말장난을 의미한다.

## 공존공영(共存共榮)

함께 공, 있을 존, 영화 영.

여러 사람이 더불어 함께 잘 산다는 의미이다. 직역하면 함께 존재하며 함께 번영한다는 뜻이다. 생존경쟁에 따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의 약육강식(弱肉強食), 적자생존(適者生存) 등과 반대되는 말이다.

## 공수래 공수거(空手來空手去)

발공. 손수 올래. 갈 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뜻으로 삶의 덧없음

을 나타내는 말로 살아가면서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쫓아도 결국 모두 부질없으므로 너무 아등바등 욕심부리며 살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됨.

「옛날에 어느 큰 부자가 죽었다는 부고가 나서 그의 친지들이 문상을 왔다. 그런데 그의 관 모양이 조금 이상했다. 관 크기가 조금 작고 관의 양쪽에 구멍이 뚫려서 시신의 손이 관 밖으로 빠져 나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문상 온 사람들이 상주인 아들에게 연유를 물으니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실은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서 부자로 살았지만 인생이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와서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고 관을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칠 과. 오히려 유. 아니 불. 미칠 급.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하고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 논어(論語)의 선진편(先進篇)에 나오는 말이다.

유래: 어느 날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자장과 자하 중에 어느 쪽이 낫습니까. 공자가 답하기를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자공이 다시 물기를 "그러면 자장이 더 낫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자가 다시 답하기를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으니라."

이처럼 과유불급의 뜻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으니 결국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말에서 비롯된 고사성어(故事成語)입니다.

## 24년도 전주·완주 종친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수여

2024년도 전주·완주 종친회(회장 권이수)는 지난 10월 26일 본 회 장학생 선발 규정에 따라 선발된 전북과학교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내)에 재학 중인 권하늘(36세) 학생과 전북대학교 원예학과 4학년(내)에 재학 중인 권민진(36세)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우리 종친회 장학위원회(위원장 권이수)는 지난 8월 13일 권이수 회장과 부위원장 권오신 고문 등 9명의 장학위원이 선발 대상자를 심의 평가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위 두 사람을 24년도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권하늘 학생은 소감을 통해 안동권씨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 항상 약자 편에서 보람 있게 일을 하고 사회에 봉사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였다. 권민진 학생은 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농촌지도사로서 연구와 신기술을 개발하여 고령화 된 농촌을 변화시키고 농촌의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권이수 회장은 장학금 수여식 인사말에서 오늘 2024년도 장학생으로 선



발된 권하늘 학생과 권민진 학생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물론 꾸준한 자원 봉사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학교에서는 근면 성실하며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선발되어 오늘 종친회 회원님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보람되고 뜻 깊은 장학금 수여식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권하늘, 권민진 두 학생은 전주·완주 종친회 장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감을 갖고 큰 희망과 포부를 향해 더욱더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인재를 양성을 위해 매년 소정의

장학금을 기탁해 주시는 권오신 고문님(100만원), 그리고 권명수 수석부회장님(50만원), 권기성 고문님(100만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종친회에서도 매년 100만원을 장학사업에 기탁해 오고 있으며, 장학사업에 참여 해주시는 회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장학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안동권씨 전주·완주 종친회는 훌륭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함은 물론 종친회 발전과 회원들의 권리와 복리 증진에도 더욱 더 노력 할 것이다.

권영춘 전주·완주종친회 총무이사

## <2024년 10월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 9.27.~10.28  
총 납부자 120명/ 지사 1곳

(이름순)												단위: 원			
권근식(서울금천)	30,000	권병우(산청)	30,000	권순보(안양)	30,000	권영인(안동)	30,000	권오성(광명)	30,000	권우곤(성남)	30,000	권중길(서울구로)	30,000	권혁조(안동 안기동)	30,000
권경상(제천)	30,000	권병채(영천)	30,000	권순봉(경주)	30,000	권영인(합천)	30,000	권오수(대구)	30,000	권위달(영덕)	30,000	권중진(양주)	30,000	권혁주(서울도봉)	30,000
권광규(창녕)	30,000	권병환(삼척)	30,000	권순팔(안양)	30,000	권영재(고양)	30,000	권오수(서울관악)	30,000	권유선(용인)	30,000	권창순(양평)	30,000	권혁준(대구)	30,000
권국노(익산)	30,000	권부성(서울서초)	30,000	권순호(대구)	30,000	권영준(상주)	30,000	권오식(안동시 풍산읍)	30,000	권익홍(익산)	30,000	권창택(김포)	30,000	권혁태(영주)	30,000
권기순(대구 범물동)	30,000	권사호(창원)	30,000	권순찬(용인)	30,000	권영현(김해)	30,000	권오안(창녕)	30,000	권이섭(경기광주)	30,000	권춘규(수원)	30,000	권현(대구)	30,000
권기일(대구)	30,000	권삼달(울산)	30,000	권승현(강릉)	30,000	권영환(서울은평 불광로)	30,000	권오영(봉화)	30,000	권인순(대전)	30,000	권철수(대구)	30,000	권현수(서울강북)	30,000
권기진(영주)	30,000	권상우(군위)	30,000	권연형(경주)	30,000	권오경(영양)	30,000	권오영(예천)	30,000	권인진(의왕)	30,000	권태갑(문경)	30,000	권희성(아산)	30,000
권기춘(안동)	30,000	권상택(경주)	30,000	권영대(용인)	30,000	권오기(수원)	30,000	권오익(안산)	30,000	권일웅(대구)	30,000	권태근(평창)	30,000	권희용(안동)	30,000
권기출(여주)	30,000	권상호(안동 와룡면)	30,000	권영돌(안동)	30,000	권오길(경주 용강동)	30,000	권오중(경주)	30,000	권정환(안동)	30,000	권태현(부산)	3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갈상(강릉)	30,000	권성갑(순천)	30,000	권영민(포항)	30,000	권오만(광명)	30,000	권오주(서울강남)	30,000	권재천(창원)	30,000	권태호(부산)	30,000	대전 참의공종중	500,000
권대일(대구)	30,000	권성달(광주)	30,000	권영배(대구)	30,000	권오복(강릉 노암동)	30,000	권오중(경주)	30,000	권태태(진주)	30,000	권태환(영덕)	30,000	총	6,620,000원
권도혁(대구)	30,000	권승환(울산)	30,000	권영수(영주)	30,000	권오부(부산)	30,000	권오진(여주)	30,000	권정희(영주)	30,000	권태훈(서울영등포)	30,000		
권동식(남양주)	30,000	권수기(대구)	30,000	권영수(제천 화산동)	30,000	권오서(대구)	30,000	권오춘(양평)	30,000	권종규(안동)	30,000	권태후(상주)	30,000		
권득상(제천)	30,000	권수오(안동)	30,000	권영숙(안동 평화동)	30,000	권오석(봉화)	30,000	권오현(구미)	30,000	권종만(안동)	150,000	권택준(태백)	30,000		
권병국(상주)	30,000	권수웅(진주)	30,000	권영환(서울강남)	30,000	권오선(경산)	30,000	권오현(영주 휴천동)	30,000	권종욱(영주)	30,000	권현정(봉화)	30,000		
권병성(서울노원)	30,000	권순구(강릉)	30,000	권영우(하남)	30,000	권오섭(영주)	30,000	권오훈(대구 서구)	30,000	권주석(상주)	30,000	권혁도(경주)	30,000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